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TEL 02-3460-7314 FAX 02-3460-7777

'글로벌 이슈 페이퍼' 정보는 전 세계 124개 무역관에서 오는 실물 경제정보를 취합 분석하고 현안 이슈가 발생한 해외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 무역 투자 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슈 요약

2015년 신흥 전략시장 경제 전망 및 진출 방안

- 신흥 전략시장이란 미국, EU, 일본 등 산업 발달 수준이 높고 시장이 성숙된 지역을 제외한 신흥 시장 중에서 시장 잠재력이 높고 장기적으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시장임
- 신흥 전략시장은 아직 미성숙하나 내수시장 규모 또는 프로젝트 시장 규모가 크며 장기적으로 진출 여지가 밝은 블루오션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전후 재건 수요가 큰 이라크 및 리비아, 최근 서방의 경제제재가 완화되면서 교역 및 투자 여건이 개선되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란, 쿠바, 미얀마가 신흥 전략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한국과의 FTA 체결 및 비준 추진 등으로 교역 조건이 개선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터키, 베트남 등도 신흥 전략시장에 포함되는 국가들임
- 우리기업의 향후 신흥 전략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를 위해 이들 국가의 시장특성 및 주요이슈, 국가별 경제현황 및 전망, 시장진출전략 및 수출유망상품 등을 조사하여 게재하는 바, 향후 교역 및 투자진출 활동시 많은 참고 있기를 바람

목 차

1. 신흥 전략시장 선정 사유 1P
2. 전략시장 시장 특성 및 주요 이슈 2P
3. 신흥 전략시장 국별 경제동향 11P
4. 전략시장 진출방안 및 수출 유망상품 19P

2015 신흥 전략시장 경제 전망 및 진출 방안

1. 신흥 전략시장 선정 사유

□ 선정 사유 및 내역

- 신흥시장으로서 시장 잠재력이 높고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시장을 선정
 - 높은 진입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 효과, 서방 국가의 제재 완화, 전후 재건 특수 등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략시장 선정

※ 미국, EU, 일본 등 산업 발달 수준이 높고 성숙된 지역은 신흥 전략시장에서 제외

- 이란, 이라크, 리비아, 쿠바, 미얀마,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터키, 베트남 및 북한 등 10개국을 2015년 코트라 전략시장으로 선정

국가명	구 분	비 고	시장 전망
이라크	전후 재건 수요	내전이후 프로젝트 시장 유망, 인구규모 (35백만) 및 구매력(6,594달러/1인) 보유	
리비아		내전이후 프로젝트 시장 유망 - 약 400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 재개 추진	
이란	서방의 경제 제재 완화 및 시장개방화 분위기	핵 협상으로 서방과의 긴장완화 및 시장개방화 분위기	
쿠바		미국의 대쿠바 경제제재 완화 조치 및 관계정상화	
미얀마		'11 민선대통령 출범이후 대미 관계 개선	
북한	지정학적 요충지	유라시아 및 동북아 시장 진출 요충지	-
인도네시아	FTA 체결 및 시장 개방	한-ASEAN FTA 및 1.5억 시장	
콜롬비아		한-콜롬비아 FTA 비준 추진	
터키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서명('15.2월)	
베트남		한-베트남 FTA 타결('14.12월)	

※ 북한 : 지정학적 요충지이나 현재 자유 교역이 불가능한 지역임을 감안, 금번 조사대상에서 제외

2. 전략시장 시장 특성 및 주요 이슈

□ 시장특성

이라크 / 리비아

- 석유 수출을 통해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자원 의존형 경제
 - (이라크) 원유 수출로 인한 수입이 이라크 재정수입의 약 95%를 차지
 - 이라크는 세계 5위의 원유매장량 및 원유생산량 일일 340만 배럴로 세계 7위를 차지하는 원유 생산 대국
 - (리비아) 재정 수입의 90% 이상을 원유 수출에 의존
 - 리비아는 총수출의 97%가 원유로서, 국가 재정의 90% 이상을 원유 수출로 충당
- 국가 재건위한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 원유 수출을 통해 확보된 재정을 국가 재건사업과 경제개발에 투자
 - 낙후된 교통인프라 건설 및 전력, 항만, 수처리, 원유 생산 및 정제 처리 시설 등 정부 차원의 각종 프로젝트 추진

이란 / 쿠바 / 미얀마

- (이란) 중동 최대 내수시장과 중동 3위의 프로젝트 발주 시장
 - 7,700만 명의 중동 최대 내수시장으로 아시아 및 유럽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보유
 - 아울러 사우디, UAE에 이은 중동 3위의 건설 프로젝트 발주국으로 프로젝트 규모는 약 2,900억 달러에 달함.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프로젝트 규모 대폭 확대 전망

- 국가 재정 수입의 50% 이상이 원유 수출로 인한 수입으로 충당
 - 원유 매장량 세계 3위이며 생산량은 일일 약 350만 배럴로서 세계 6위인 원유 수출 대국

● (쿠바) 관광 산업과 니켈 등 자원 채굴이 주요 산업

- 관광 수입과 지하자원 수출이 국가 재정 수입의 원천
 - 매년 300만 명의 관광객으로부터 약 20억 달러의 수입을 획득하고 있으며 '14년 총 수출액 55억 달러의 약 58%가 니켈, 코발트 등의 광물자원 수출이 차지
- 미개척 시장으로 진출 여지가 크나, 리스크 존재
 - 인구 1,100만 명의 내수 규모 및 중남미 거점 지역으로 시장 가치 크나, 행정 관료주의와 복잡한 법규로 기업 진출 리스크 다대

● (미얀마) 내수시장 크며 Post China 이후 생산기지 역할

- 낮은 인건비 및 풍부한 노동력 보유
 - 중국의 1/3 수준의 인건비와 15~64세인 생산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베트남 다음의 생산기지로 가능한 지역임
- 내수시장 크나 열악한 인프라가 걸림돌
 - 5,400백만 명의 인구와 접경지역 반경 3천KM내 3억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시장규모가 크나 전력, 용수, 도로, 항만 등 인프라가 부족하여 시장 진출 장애로 작용

인도네시아 / 콜롬비아 / 터키 / 베트남

● (인도네시아) 아세안 최대 경제국

- 2억 5천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 보유
 - 아세안 국가중 최대 경제 대국으로 전체 아세안 10개국 총 GDP의 38.1%를 차지
- 풍부한 천연자원 및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으로 성장 잠재력 다대

- 팜오일(세계 1위), 고무/카카오(세계 2위), 커피(세계 4위) 및 주석/니켈(세계 2위), 동(3위), 석탄(5위) 생산 대국으로 지하자원 풍부
- 인니 정부의 경제개발 마스터플랜(2011~2025)으로 자원의존 경제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 업 등으로 전환 추진

● (콜롬비아) 중남미 3위 시장으로 프로젝트 다대 시장

- 인구 4천7백만의 내수시장을 지닌 중남미 3번째 규모의 시장
 - 브라질, 멕시코 다음의 큰 시장이며 소득증가로 내수시장 성장 추세
- 인프라 및 자원 개발 프로젝트 활발
 -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각종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 및 석탄, 원유 등 미개발 자원 탐사 프로젝트 지속 발주

● (터키) 내수시장 보유한 유럽 진출 교두보

- 유럽 진출 교두보로서의 지정학적 이점
 - 유럽 진출의 관문으로 터키와 EU는 '96년 관세동맹을 체결하여 EU 수출을 위한 전초기지 및 교두보 역할
- 7,600만 인구를 지닌 내수시장 및 견고한 성장세 지속 시장
 - 시장 규모가 크고 제조업이 발달하여 자동차 및 차부품, 기계, 전자 등의 수요 높은 편임. 최근 2년간 3~4%대의 견고한 성장 지속

● (베트남) 지속적인 경제성장하는 동남아 생산기지

- 아세안 중심국중의 하나로 부상
 - 최근 3개년('12~'14년) 경제성장을 5~6%의 견고한 경제성장 지속과 8,970만 인구의 내수 시장으로 아세안 경제의 차세대 리더국으로 부상
- 저렴한 인건비 및 풍부한 노동력으로 생산 기지로서 역할 다대
 - 중국보다 낮은 임금 수준과 비교적 안전한 치안, 노동력 등으로 생산 기지로서의 전략적 가치 높은 시장
 - * 생산직 초임 160~200U\$/월, 사무직 초임 250~350U\$/월

□ 2015년 주요 이슈

이라크 / 리비아

(이라크) '15년 내전 안정화 여부가 관건

- 3개 종파를 아우르는 거국 내각 구성('14.7월) 및 향후 국정안정이 관건
 - ISIL 반군이 '14.6월 이라크 북부지역에 위치한 제2도시 모슬 함락과 바그다드 북쪽 티크리트를 점령한 이후 내전 상태를 지속하고 있음
 - * 최근('15.3월말) 이라크 정부군은 ISIL 점령지였던 티크리트의 탈환하였다고 발표
 - 이라크 정부는 수니파의 ISIL 반군과 시아파의 정부와의 종교적 이질성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14년 7월 이라크내 3대 종파를 아우르는 거국내각을 구성.

시아, 수니, 쿠르드 3개 종파이자 정치세력이 세력간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새로 구성된 신정부가 수니계의 요구를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는지가 신정부 성공 및 국정안정의 관건

* 쿠르드계 대통령, 시아파 총리, 수니파 국회의장으로 세 종파가 각각 권력을 분배. 행정부 실권은 시아파 총리가 관장하는 내각책임제

- 정부 발주 프로젝트 시장은 금년 한해 동안 위축될 전망
 - 내전에 따른 군비 지출, 저유가 현상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금년 한해 정부 발주 프로젝트 물량은 대폭 감소가 예상됨
 - 이라크 북서부 등 ISIL 시아파 점령 지역의 경제권 붕괴 및 치안 극도 불안 상태로 점령지 및 인근지의 프로젝트 발주에 어려움
 - * 우리 기업들도 이라크 서부 및 북부 지역내 추진하던 가스전 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 무기한 연기한 바 있음

(리비아) 임시정부 체제속 신정부 구성 및 치안 확보가 중요

- 민병대간의 충돌 이후 정부의 통제력 약화 상태 지속
 - '14. 7월 이슬람주의 Misrata 민병대와 세속주의 Zintani 민병대간 대규모 무력충돌 이후 트리폴리 공항이 폐쇄되면서 치안 불안 심화
 - 일본, 터키, 영국 등 주요 국가 공관이 철수('14.7월)하였으며 미국은 대사관 잠정 폐쇄 및 튀니지로 전원 철수('14.7월)
 - 민병대간 무력 충돌이 심화되고 이에 대해 정부가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트리폴리 행정은 마비된 상황. 현재 임시정부에서 신정부 구성을 위한 과도 체제에 있으며 신정부 구성을 통한 국내 치안확보가 관건
- 향후 신정부 출범 및 내전 안정화 이후 재건.복구 사업 진행 가능 전망
 - 임시정부에서 신정부로의 이양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내전이 안정화될 시 '11년 내전 및 '14.7월 민병대간 전투 등으로 중단된 프로젝트 재개 및 전후 재건 프로젝트들이 추진될 전망
 - * 리비아는 개발 및 재건 프로젝트에 '13년 145억 달러(총예산의 28.9%), '14년 74억 달러(총예산의 15.8%)의 예산을 편성

이란 / 쿠바 / 미얀마

(이란) 서방과의 핵 협상 결과가 향후 이란 정치.경제 발전에 중요한 관건

- 6개국(UN상임이사 5국+독일 : P5+1)과 이란간의 핵 협상 종료시한 재연장
 - '14년 7월의 핵 협상에서 양 측은 협상 타결 시한을 4개월 연장하였으며, 11.24일부로 핵협상 종료 시한을 '15년 7월 1일까지 재연장
 - '15. 3월 31일 서방과 이란 양 측 핵 협상 회의 개최 (스위스 로잔)
 - . 핵협상 종료시한이 '15년 6월말이나, 3개월전(3월말)까지 포괄적.정치적 합의를 끝내고 나머지 석달간 기술 부문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전격 합의.
 - . 양 측은 이란 제재 해제 시점과 범위, 이란의 핵 연구.개발 제한 수준, 이란의 농축우라늄 재고분 이전 장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양측 이견을 좁혀 나갈 것으로 전망

* (참고) '14.7.19 핵 협상에서는 이란이 추가적인 핵 활동을 중단기로 하고
반면에 6개국 이란의 해외자산 28억 달러 동결 조치를 해제기로 함

- '14. 7월의 경제 제재 완화 조치가 이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침체된 경제를 근본적으로 활성화시키기는 어려운 구조.
그러나 경제제재 완화 이후, 이란 시장에 대한 서방 기업 관심이 증대하며 대형 프로젝트 및 내수시장에 대한 서방기업의 진출 의사가 확대되고 있음

(쿠바) 53년만에 '14.12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 미국 정부는 1961년 1월 피델 카스트로의 공산정부와 국교를 단절한 이후 53년만인 '14. 12. 17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고 '15. 1.16일 경제 완화 조치를 발표

< 경제 완화 조치 주요 내용 >

- '15년 쿠바내 미 대사관 설치 목표
- 미국인의 쿠바 여행 규제 완화 : 가족방문, 정부기관 방문, 언론, 교육, 종교활동 등을 포함
- 미국인의 쿠바 송금 허용 확대 : 분기당 500달러 → 2,000달러 (정부기관/공산당 등 제외)
Cuban-American의 쿠바의 친척에게 송금은 제한 없음
- 양국간 일부 품목에 대한 상업적 교역 확대 : 건설자재, 농기구, 일부 개인사업가 필요제품.
쿠바 민간 분야 활성화 위한 제품 수출허용 예정

- 미국-쿠바간 관계정상화로 중장기적인 교역.투자 환경 개선, 문화 콘텐츠 및 관광서비스 등이 보다 활기를 띠 전망
- 그러나 미국 의회가 엠바고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운 무역거래, 대금 결제가 불가능하며 또한 쿠바 내의 인프라 미비, 외화부족으로 쿠바와의 정상적인 교역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실정

(미얀마) 미국('12.7), EU('13.4) 등 서방의 대미얀마 경제제재 조치 완화

- '11년 민간 정부 출범이후 민주화 진전되면서 국제사회와 관계 개선
- '11.4월 대선에서 테인 세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민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정부 출범 전후로 수치 여사 감금 해제, 반체제인사 블랙리스트 해제, 언론 검열 철폐 등 민주화 조치를 지속 추진

- 민주화 진전되면서 미국의 대미얀마 경제제재 완화('12.7), EU의 경제제재 완화('13.4) 등이 취해졌으며 이에 따라 교역여건 및 시장개방화 진전
- '15년 총선이 있어 그 결과가 미얀마 경제에 중요한 기로
 - 신정부의 민주화 조치 및 전력·도로망 개선, 신규 투자 확대 등으로 '15년 재집권 가능성이 있으나, 반면 소수민족 문제, 인종분쟁, 불교 및 무슬림간 갈등의 사회적 문제들이 많아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향후 재집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현재 추진중인 각종 경제정책 및 프로젝트들이 총선 및 대선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 있음
 - . '15. 10월 또는 11월의 미얀마 총선 및 이후 대선(총선 3개월 이후)으로 하반기에는 정부 주요 정책들이 총선 이후로 지연 가능

인도네시아 / 콜롬비아 / 터키 / 베트남

(인도네시아) '14. 7월 대선 이후 조코위 신정부의 안정속 성장 정책 추진

- 조코위 신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안정 이룸
 - '14. 7월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2004년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한 이후 첫 번째 정권교체를 하였음. 조코위 대통령은 자수 성가한 기업가 출신의 참신한 정치인으로 평가받음
 - 대선이 안정적으로 치러지면서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인도네시아는 최근 국제 원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14년 5.2%의 안정적 성장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15년에도 5.6%의 성장을 예상 (EIU)
 - * 인도네시아는 세계 원유 소비량의 1.8%('13년)를 소비하고 있는 신흥국 중 원유 소비 대국이며 정부가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유가 하락이 국가 재정과 경제 전반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 전망
- 인프라 부족 해소 정책 중점 추진
 - 조코위 정부는 현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국내산업 보호, 수입규제 정책 기조를 지속할 전망. 그러나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확충에 주력하고, 자원 배분의 왜곡과 성장 제약 요인으로 꼽히는 부정부패 척결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 항만-국가 연결성 강화위해 2025년까지 92건에 124억 달러 투자 계획
- 공항-2022년까지 총45개의 신공항 건설 추진, 도로.철도-2019년까지 총연장 2,000km 도로망 신설 및 개보수 및 2030년까지 자바-발리, 수마트라, 깔리만탄, 술라웨시, 빠뿌아 섬에 도시철도 3,800km포함, 총연장 12,100km 철도망 건설 추진

(콜롬비아) '14.6월 산토스 대통령 재선으로 기존 정책 큰 틀 유지 전망

- 1기 행정부의 시장개방, FTA 활용 확대 정책 등 유지 전망
 - '14. 5~6월 콜롬비아 대선에서 산토스 현 대통령이 야당 술루아가 후보를 이기고 재선에 성공. 5명의 후보가 출마한 1차 선거에서는 술루아가 후보가 29.3%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으나 최종 2차 투표에서 6%차로 패배
 - 산토스 정부는 대외 경제 정책으로, 1기 행정부 기간 추진한 시장개방, FTA 활용확대, 역내 경제블록 강화 등의 실용 노선을 2기 행정부에서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인프라 건설, 산업개발 등에 집중 예상
 - 국내 경제는,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디지털화 등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전망. '13년 하반기부터 자국 산업 보호 위한 반덤핑, 세이프 가드 조치 등이 이어지고 있어 콜롬비아 경제.통상 정책이 자국산업 육성 및 보호 위주로 선회할 가능성 상존
 - 건설플랜트 시장, IT, 의료, 교육, 공공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 관련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음.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내 대중교통 ITS화 및 천연가스 전기버스 도입으로 환경오염 감소를 추진 중이며 향후 친환경 테마를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특히 친환경 폐기물처리 플랜트, 재활용/재가공 플랜트 등 친환경 기술 적용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터키) 에르도안 현총리 '14. 8월 대통령 당선으로 정치 안정

○ 향후 5년간 대통령 임기 수행

- '14. 8월의 터키 대선에서 에르도안 현 총리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급격한 변화 없이 정치 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1년 동안 총리로서 터키를 이끌어 왔으며 이번 첫 직선제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향후 5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됨

- 에르도안 대통령은 '14년초 비자금 은닉과 뇌물수수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되어 정치적 위기를 맞았으나 '14.3월 지방선거에 이어 대선에서도 승리. 터키 국민들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동안 주도해온 경제성장 정책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됨

○ 수출, 외국인투자 유치, 대외 협력 정책 지속 추진 전망

- 2003년 집권 이후 경제발전을 위해 수출에 역점을 두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힘썼으며 '03년~'14년까지 에르도안 집권 11년간 연평균 5.5%의 경제성장을 기록
- '13.5월 한-터키 FTA 발효, '13년 터키-일본간 FTA 추진위한 양국 공동 연구, '15.11 G20 정상회의 개최 등 대외 개방과 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외 협력을 통한 경제 발전 추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전망

(베트남) 적극적 대외 개방정책 유지하나 저유가가 경제성장 저해

○ 아세안과 중국 시장을 포함하는 지리적 중요성과 함께 대외개방 가속화

- 베트남은 최근 TPP, ASEAN+3(한중일), RCEP(ASEAN+3+호주.인도.뉴질랜드) 등의 지역 협력과 국가별 FTA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출 확대 및 대외신인도 제고 효과를 거두고 있음. 특히 한-베트남 FTA는 타결을 합의하여 양국간 '14. 3.28일 FTA 가서명을 완료하였으며 '15년 상반기중에 정식 서명절차와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15년 TPP와 베트남-EU FTA 협정 발효시 시장 개방도 제고 기대

- 다만 최근 저유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석유 수출국인 베트남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 * 배럴당 원유가격 1달러 감소시 국가 예산 감소 500~600억 달러로 추정

3. 신흥 전략시장 국별 경제동향

□ 국별 경제동향

이라크 / 리비아

(이라크) 꾸준한 경제 성장 이루었으나 '14년 내전 이후 경제성장 급속 하락

- '14년 6월 ISIL과의 내전으로 정정불안 및 성장률 저하
- '13년까지 적극적인 자원 투자 및 사회 기반시설 구축 등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14년은 ISIL 반군과의 내전에 따른 정정불안으로 0% 성장한 것으로 추정
- '15년도는 내전이 진정되면서 3.2%의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 이라크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9	7.5	11.3	4.5	0.0	3.2	8.6

※ 자료원 : EIU ('14는 EIU 추정치, '15, '16은 EIU 전망치)

- 이라크는 석유 수출이 총 수출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 수출을 통해 정부 재정의 95%를 충당
- 2015년 이라크는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는 이라크 내전이 진정되고 유가가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재정 확보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이라크 주요 경제지표(2014년) >

인구 (백만 명)	GDP (백만 달러)	GDP 성장률(%)	1인당 GDP(USD)	수출 (백만 달러)	수입 (백만 달러)
34.6	213,799	0.0	14,649	85,298	52,475

※ 자료원 : EIU (2014 EIU 추정치)

(리비아) '10년까지 5%대 경제성장 하였으나, 내전 이후 급격한 마이너스 성장

- '11년 내전 발생 이전 리비아는 미국 및 서방과의 관계 정상화,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4~5%대의 견실한 성장을 기록
 - 그러나 '11.2월부터 반정부군과의 내전 발생으로 '11년 경제는 마이너스 61% 성장으로 급격히 악화됨
 - 북아프리카 민주화 운동에 따른 시위 확산('11.2월) → 카다피 정부의 무력 진압 → 반군 정부(국가 과도 위원회)수립('11.3월) → 나토 다국적군의 대규모 공습('11.3월) → 반군과의 내전 확대 및 반군의 트리폴리 함락('11.8월) → 카다피 사망('11.10월)으로 이어진 리비아 내전이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

< 리비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4.3	-61.4	92.1	-3.0	-5.2	-6.4	2.7

※ 자료원 : EIU ('12~'14는 EIU 추정치, '15, '16은 EIU 전망치)

- 석유 및 가스 수출로 경제를 운용하는 자원의존형 경제구조
 - 리비아 경제는 석유 및 가스 생산 부분이 주도하고 있으며, '09년 기준으로 석유.가스 수출이 총수출의 95%, 재정 수입의 90%를 차지하였음. 이후 내전으로 정확한 통계 발표는 없으나 '09년과 비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추정

< 리비아 주요 경제지표(2014년) >

인구 (백만 명)	GDP (백만 달러)	GDP 성장률(%)	1인당 GDP(USD)	수출 (백만 달러)	수입 (백만 달러)
6.3	64,703	-5.2	19,383	15,186	13,620

※ 자료원 : EIU (2014 EIU 추정치)

이란 / 쿠바 / 미얀마

(이란) '14. 7월 서방과의 핵 협상 및 제재 완화로 경제 여건 호전

- 향후 서방과의 교류 확대에 경제에 플러스 효과 예상
 - 이란의 핵 개발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재 조치로 인해 '12~'13년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으나, '14년 7월 서방 5+1국(UN상임위5국+독일)과의 핵협상을 통해 이란에 대한 제재완화 조치를 취함

< 최근 이란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6	3.7	-6.6	-1.9	2.9	2.0	5.6

※ 자료원 : EIU (14'는 EIU 추정치, 15', 16'은 EIU 전망치)

- '13. 8월 로하니 정부 취임 이후 경제안정화 및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수행
 - '14년 1.7% 성장하여 '11년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경제성장 기록
 - '05.8월~'13.8월의 아흐마디네자드 정부는 동 기간 원유수출 및 외국인 투자 감소, 리알화 평가절하 등의 정책 실패로 고인플레이션 및 실업을 등 경제난 지속되었음
- 2015년에도 경기 회복 기조는 지속될 전망
 - '15년에도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나, 최근 지속되고 있는 국제적인 저유가 추세와 서방과의 핵 협상이 변수

< 이란 주요 경제지표 (2014년)>

인구 (백만 명)	GDP (백만 달러)	GDP 성장률(%)	1인당 GDP(USD)	수출 (백만 달러)	수입 (백만 달러)
78.5	411,886	2.9	22,282	95,951	66,052

※ 자료원 : EIU (2014 EIU 추정치)

(쿠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14.12월) 이후 점진적인 경제 성장 전망

○ 지하자원과 농수산물 생산 위주의 경제 운영

- 쿠바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현금 송금, 쿠바 방문 등이 제한을 받으면서 대외무역이 위축되어왔음. 그동안 쿠바 경제는 니켈 등 지하자원과 설탕, 담배 등 천연자원의 수출, 관광산업 수입 등으로 경제를 운영
- 지하자원 및 농산물 생산 등 1차산업과 관광산업이 주요 산업임

* 쿠바 경제는 '92년 미국의 '쿠바 민주화법' 제정 등 대쿠바 금수조치로 경제에 많은 타격을 받아왔으며, 최근 '14년 12월 미국-쿠바 양국의 관계정상화 발표로 향후 쿠바 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전망

* 양국 관계 정상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회에 의한 엠바고에 따른 자유로운 무역 거래 및 대금결제의 어려움 등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망됨

< 최근 쿠바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4	2.8	3.0	2.7	1.3	4.1	4.5

※ 자료원 : EIU ('14는 EIU 추정치, '15, '16은 EIU 전망치)

○ 시장개방화 확대시 중남미 진출 교두보로서 지리적 요충지화 가능

- 현재는 장기간 지속된 미국의 경제 제재조치로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 대외 개방 가속화시 중남미 및 미국 시장 진출위한 교두보로서 전략적 가치 높음
- 시장 개방시 농산물 및 지하자원 개발위한 농기계, 건설장비 등과 IT 통신, 자동차 등이 유망산업임. 아울러 쿠바는 전통적으로 의약품 생산을 포함한 의약산업이 비교적 발전되어 있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요도 높은 편

< 쿠바 주요 경제지표 (2014년) >

인구 (백만 명)	GDP (백만 달러)	GDP 성장률(%)	1인당 GDP(USD)	수출 (백만 달러)	수입 (백만 달러)
11.2	82,527	1.3	11,930	5,477	14,951

※ 자료원 : EIU (2014 EIU 추정치)

(미얀마) 높은 경제성장률 속 인프라 부족이 성장 저해

○ 최근 3년간 5%를 넘는 경제성장률을 이루며 고성장 추세 지속 전망

- 풍부한 천연자원, 비옥한 토지, 풍부한 젊은층 노동력과 낮은 임금수준 등을 바탕으로 고성장 유지. 2015년에도 6.7%의 경제성장이 전망됨
- 미얀마 민주화 진전과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 등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 * 미얀마가 '민주주의로 가는 7단계 로드맵'에 의거한 '08년 헌법 개정, '11년 민간 신정부 출범 등 민주화 진전되면서, '12년 미국은 금융거래, 신규투자, 미얀마제품 수입 등을 허용하는 대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조치 시행

< 최근 미얀마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4.5	4.8	5.0	5.5	6.4	6.7	7.1

※ 자료원 : EIU ('10~'14는 EIU 추정치, '15, '16은 EIU 전망치)

- 사회 인프라 부족으로 통신, 도로, 전력 등의 부족 현상이 경제발전 걸림돌
 - 통신, 도로, 전력 등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필요한 상황
 - * 한파와디 신공항 건설, 양곤 및 만달레이 공항 개선, 델라와/짜옥푸/드웨이 경제자유구역(SEZ) 조성,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등 대형 프로젝트 본격화될 전망

< 미얀마 주요 경제지표 (2014년) >

인구 (백만 명)	GDP (백만 달러)	GDP 성장률(%)	1인당 GDP(USD)	수출 (백만 달러)	수입 (백만 달러)
53.7	47,427	6.4	3,596	10,186	13,752

※ 자료원 : EIU (2014 EIU 추정치)

인도네시아 / 콜롬비아 / 터키 / 베트남

(인도네시아) 안정적 경제성장속 인프라 부족에 따른 애로 상존

- 최근 5개년간 5~6대의 안정적 경제성장세 보임
 - '10~'12년간 6%대의 안정적 경제성장 및 '13~'14년 5%대의 성장 기조 유지
 - '14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5.01%로 '09년 3분기 4.27% 이후 가장 낮은 성장

를을 보였는데 인니 통계청은 최대 수출국 중국의 성장률 둔화와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 하락때문으로 분석

< 최근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4	6.2	6.0	5.6	5.0	5.2	5.5

※ 자료원 : EIU ('15, '16은 EIU 추정치)

○ 인프라 부족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국토가 넓고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도로, 항만, 통신 등 인프라 투자가 부족하여 경제활동에 애로로 작용

* 인프라투자가 과거 10년간 GDP의 약 3~4%에 불과하며 중국(10%), 인도(5.7%) 보다 낮은 수준. '13~'14년 세계경제 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 148개국 중 인니는 도로(78위), 항만(89위), 전력(89위) 등으로 인프라 구축 수준이 매우 낮음

< 인도네시아 주요 경제지표 (2014)>

인구 (백만 명)	GDP (십억 달러)	GDP 성장률(%)	1인당 GDP(USD)	수출 (백만 달러)	수입 (백만 달러)
253.3	888.5	5.0	10,536	175,290	168,388

※ 자료원 : EIU (2014 EIU 추정치)

(콜롬비아) 최근 4%대의 안정적 성장 유지

○ '12~'14년 연 4%대의 경제성장 실현

- 인구 4,900만, 연간 수입시장 616억 달러로 브라질, 멕시코에 이은 중남미 3위의 시장

< 콜롬비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4.0	6.6	4.0	4.9	4.6	3.4	3.7

※ 자료원 : EIU (15', 16'은 EIU 추정치)

○ 콜롬비아 정부, 사회 인프라 및 자원 개발 등 각종 프로젝트 적극 추진

- 과거 석탄, 원유, 커피, 과일 등 자원 및 농산물 등의 수출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음. 그러나 2013년 이후 콜롬비아 정부가 도로, 항만, 공항 건설 프로젝트와 공공시설 현대화 프로젝트, 원유, 석탄, 기타 광물 등 자원 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건설플랜트 사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

* 콜롬비아 정부는 '11~'14 국가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주택건설 100만 호, 상수도 건설, 대중교통 통합시스템 구축, 포장도로 4,000km 추가 등 도로 인프라 확충, 의료 및 교육 시스템 확대 개편 등 사회 각 분야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 주요 산업별 GDP 성장률('12년)중 건설산업이 10.8%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 한-콜롬비아 FTA 비준시 양국간 교역량 증가 전망

- '12년 6월 타결된 한-콜롬비아 FTA는 현재 비준을 남겨놓고 있음. 양국간 FTA가 비준될 경우 한국의 공산품과 콜롬비아의 농산물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어 교역량 증가 전망

< 콜롬비아 주요 경제지표 (2014)>

인구 (백만 명)	GDP (십억 달러)	GDP 성장률(%)	1인당 GDP(USD)	수출 (백만 달러)	수입 (백만 달러)
48.9	377.9	4.6	13,070	56,982	61,676

※ 자료원 : EIU (1인당 GDP는 EIU 추정치)

(터키) 내수 분야 위축으로 '14~'15년 3~4%대 성장에 그칠 전망

○ '14년 경제성장을 3.0%로 하락 및 '15년에도 내수 위축 지속전망

- '14년의 소비세 인상, 터키 리라화의 환율 상승, 금리 인상 등이 내수 시장 위축의 주요 요인

* 리라화 환율 '13년 초 달러당 1.8리라에서 2.1('14.6월5일) 2.20~2.25(12월)로 22% 이상 환율 상승. 터키 중앙은행의 금리인상(7.75→12%, '14.2월)을 단행하였으나 9~10%의 인플레이션 발생

< 터키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9.3	8.8	2.1	4.1	3.0	4.0	4.5

※ 자료원 : EIU ('14는 EIU 추정치, '15, '16은 EIU 전망치)

- 다른 신흥국과 대비 자동차, 전기전자 등 제조업 발달하여 잠재력 다대
 - 르노, 포드, 현대, 도요타 등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기지가 있으며 '12년 기준 112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
 - * 터키는 유럽 대륙과 인접하여 유럽국가 수출이 용이한 이점이 있으며, 공산품 생산 및 수출에 주력하고 있음
 - 백색가전 분야는 2000년대 이후 터키의 주력산업으로 급부상하였으며 생산품은 주로 유럽시장으로 수출하여 유럽지역 생산기지 역할을 함
 - * '13년 터키의 대EU 가전제품 수출은 17억 달러이며 백색가전 총수출액의 61.8% 차지

< 터키의 주요 경제지표 (2014)>

인구 (백만 명)	GDP (십억 달러)	GDP 성장률(%)	1인당 GDP(USD)	수출 (백만 달러)	수입 (백만 달러)
76.0	800.1	3.0	19,545	169,028	232,613

※ 자료원 : EIU (14'는 EIU 추정치), 터키 중앙 은행

(베트남) 적극적인 시장개방화 정책과 함께 견고한 경제성장 지속

- 최근 4~5년간 5~6%대의 경제성장 유지
 - '14년도 6.0%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12년 5.2%, '13년 5.4% 등 최근 4년간 5%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15년도 6.2%의 성장 전망
 - 최근 TPP, ASEAN+3(ASEAN10국+한.중.일), RCEP(ASEAN+3+호주.인도.뉴질랜드), FTA 등의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책 추진
 - * '14년 한-베 FTA, CIS 관세동맹(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과의 FTA 협상타결, '15년 베-EU FTA, TPP 협상 타결 추진

< 베트남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4	6.2	5.2	5.4	6.0	6.2	6.4

※ 자료원 : EIU (15', 16'은 EIU 추정치)

- 외국자본 유입 및 사회인프라 프로젝트 추진도 경제성장 견인

- 매년 GDP의 12~18% 규모 신규 FDI 유치 및 GDP 7~9% 규모 ODA 유입
 - * 플랜트, 자원개발에 일본, 중국, 유럽의 투자 및 ODA 규모 확대
 - '09년 이후 세계경기 침체 및 베트남 국내 경제 불안으로 정체되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11년 이후 증액투자가 늘어나면서 성장
- 높은 수출의존도, 공공부채 증가 등은 경제성장의 걸림돌
- 베트남의 GDP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년 기준 80% 수준
 - 미국 경기 회복으로 '15년 경제성장이 기대되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경기회복 지역, 러시아의 경기침체, 중국, 일본의 경제성장 둔화 등은 대외 수출 및 해외 직접투자 유치에 부정적으로 작용 예상
 - 공공부채 증가, 국가 재정부담의 대형 악재로 상존
 - * '14년 재정부담 해소위해 10억 달러 공채발행한 바 있으며, 동 발행 대부분 부채 상환 연장에 사용

< 베트남 주요 경제지표(2014년) >

인구 (백만 명)	GDP (십억 달러)	GDP 성장률(%)	1인당 GDP(USD)	수출 (백만 달러)	수입 (백만 달러)
92.5	185.8	6.0	5,519	150,186	138,273

※ 자료원 : EIU ('14는 EIU 추정치, GDP/GDP 성장률은 실제 수치)

4. 전략시장 진출방안 및 수출 유망상품

이라크 / 리비아

▣ 전후복구사업 프로젝트 참여

- 내전 이후 전후 복구 프로젝트 참여 대비
 - 이라크는 내전과 저유가로 중단 또는 보류되는 프로젝트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향후 내전 종료시 전후 복구 프로젝트 및 중단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따라 발주처와의 네트워킹, 현지 입찰 정보 모니터링 등 장기적 관점에서 프로젝트 참여에 대비 필요

- 현재 이라크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BOT(Build-Operate-Transfer), BOO(Build-Own-Operate)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이연지급(Deferred Payment)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 내전에 따른 수요 증가 유망상품 발굴

- 차부품, 핸드폰, 용접기 등 등 현지 유망 수출 품목 바이어 발굴
 - 내전에 따른 시장 불황과 침체 속에서도 차부품, 핸드폰, 용접기 등 품목, 발전기, 에어컨 등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출 유망
 - 현지 바이어를 적극 발굴하여 수출로 연계

< 무역관 발굴 이라크 수출유망상품 >

품목명	HS CODE	시장규모(천 달러)	증가율(%)	참고(전시회)
디지털 TV	852872	2,500	13.7	-
자동차(1500cc~3000cc)	870323	1,240,000*	-10.7*	Erbil Autoshow
자동차부품	870899	23,661*	37.7*	Erbil International Fair
휴대전화	851712	5,865*	173.7*	
용접기	8515	20,000	12	
세라믹 타일	680210	-	10	
타이어	4011	23,661*	37.7*	
장난감	9503	-	10	
화장품	3304	17	-	
담배	240220	1,500	5	

* 표시 항목 : 현지 시장규모 통계 부재로 수입규모 수치로 대체

이란 / 쿠바 / 미얀마

■ 이란, 쿠바는 향후 시장 개방 대비한 시장 선점 전략 구사

- 중동 최대 규모의 이란 시장은 시장 선점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제재완화 시행 초기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공격적 마케팅 노력이 필요함
 - 기존 주요 수출상품인 가전, 석유화학, 철강제품 등과 더불어 자동차부품, 산업용 기계 등 유망품목 대상 집중적인 마케팅 필요
 - * (참고) '14.10월 이란 테헤란 한국상품전에서 화장품, 의약품, 비디오 도어폰, 의류(내의), 의료(임플란트 기술) 등이 현지 바이어로부터 호평받음

< 무역관 발굴 이란 수출유망상품 >

품목명	HS CODE	시장규모(천 달러)	증가율(%)	참고(전시회)
세탁기 드럼	845090	68,502	72.64	Fourteenth International Home appliance Fair
납축전지	850710	48,678	1.45	The 9th Auto parts international Exhibition
신문용지	480100	86,252*	14.9*	International Printing, Packing & Related Machinery Exhibition
브레이크 및 서보모터	870830	149,732	7.97	The 9th Auto parts international Exhibition
열연강판	721934	92,406	6.28	14th International Industry Exhibition of Tehran
열펌프	841861	3,180	1.5	International Exhibition of Installation, Heating, Cool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 Refrigerating / Iran HVACR
열교환기	841950	57,433	30.27	Iran HVACR 2014
포장용랩	392043	59,990	-11.03	Iran Pack & Print Exhibition 2014
공기조절기	8415	225,040*	-28.65*	-
CCTV	852580	115,263	-24.81	Iran Security System 2014

* 표시 항목 : 현지 시장규모 통계 부재로 수입규모 수치로 대체

- 쿠바는 '14.12.17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조치로 수혜품목인 소비자용 정보통신기기, 쿠바 민간분야 양성위한 농기계, 건설기기 및 기자재 등이 유망품목으로 분류. 또한 쿠바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과 연관된 자동차 및 차부품, 호텔용 가전 등과 우리나라의 경쟁력 보유 가전 및 컴퓨터 기기 등도 향후 수출 유망
- 쿠바는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 인프라의 미비,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교역환경을 고려시, 아바나 국제박람회를 통한 국영 공기업과의 거래가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음
- * (참고) '14.11월 쿠바 아바나 국제박람회에 우리기업의 가전제품, 소형 풍력발전기,

섬유, 소형 태양광 발전기, 자동차 부품, 가정용 믹서기 등이 현지 바이어로부터 호평받음

■ 미얀마, 개방화 확대 대비한 적극적 시장 선점 전략 구사

- 인프라 확충위한 건설 수요와 함께 미얀마 정부의 농업 개발 정책, 에너지 및 전력난 해소 정책, 저렴한 노임 활용한 봉제업 등 현지 특성 활용 유망 품목 발굴
 - 인프라 확충 관련 건설중장비, 철강제품, 펌프/밸브, 페인트, 농업개발 관련 농기계, 비료/농약, 에너지 시설 확충 관련 전력케이블, 발전기, 봉제 투자 관련 섬유기계, 원단 등 수요가 증가

< 무역관 발굴 미얀마 수출유망상품 >

품목명	HS CODE	시장규모(천 달러)	증가율(%)	참고(전시회)
화장품	330499	44,050	36.7	Cosmobeaute Myanmar
식품(라면)	190230	21,310	30.8	Food & Hotel Myanmar 2014
발전기	850220	5,351	28.2	Electricals Motor Machinery Auto Parts Fair
의약품	300410	18,920	-3.9	Myanmar Phar-Med Expo
CCTV	852580	19,810	91.2	Myanmar Fair For Hardware & Building Material
생활세척용품	340120	26,840	25.7	Cosmobeaute Myanmar
원단	520829	4,780	119.2	Myanmar International Textile & Garment Industry Exhibition
펌프&밸브	848110	1,612	45	The International Manufacturing Machinery, Equipment, Materials and Services Exhibition
주방용품	761510	1,730	14.5	Myanmar International Food-tech Industry Exhibition
콘택트렌즈	900130	442	91.3	Cosmobeaute Myanmar
페인트	320810	5,390	64.3	Myanmar Fair For Hardware & Building Material

인도네시아 / 콜롬비아 / 터키 / 베트남

■ 인니, 제품 차별화 전략으로 내수시장 공략

○ 저소득층 및 중산층간 다른 구매성향 활용

- 인도네시아는 1인당 국민소득 3,500달러의 저소득 국가로서 중저가품 수요가 많으나, 약 3천만 명에 달하는 중산층이 있어 이들 대상 중고가 제품을 병행 타겟팅하는 차별화 전략 필요

○ 한-아세안 FTA 및 한류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 품목 적극 대처

- 한-아세안 FTA를 활용한 인도네시아 내수시장 공략이 필요.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라이프 스타일과 연관된 의류, 식품, 생활용품 등 한류 파생상품 수요 증가 추세

< 무역관 발굴 인도네시아 수출유망상품 >

품목명	HS CODE	시장규모(천 달러)	증가율(%)	참고(전시회)
이동식 보조배터리	-	-	-	-
오징어간분	230120	119,895.83*	15*	INDO LIVESTOCK 2014
라식기계		304,596*	35.98*	INDO MEDICA EXPO
화장품	3304	10,500	8.2	Chinesse New Year "Beauty Fortune Fair" 2014
차량 블랙박스	852580	117,423	32.8	INAPA 2014 (The 6th Indonesia International Auto Parts, Accessories and Equip Exhibition 2014)
남성 화장품	3304	-	-	Cosmobeaute Indonesia
LED램프	854140	74,914*	3.5*	INALIGHT 2014 The Indonesia International Lighting Exhibition 2014
라면	190230	1,800	10	Interfood Indonesia Expo 2014 / Food Exhibition
광케이블	900110	24,900*	56*	ICT EXPO INDONESIA
팜오일 컨베어 체인	7315	21,649*	-11.7*	-

* 표시 항목 : 현지 시장규모 통계 부재로 수입규모 수치로 대체

■ 콜롬비아, FTA 유망시장 및 프로젝트 시장 진출

○ FTA 유망품목 발굴 및 마케팅 활동 강화

- 한-콜롬비아 FTA는 협상이 타결되어 비준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로 향후 FTA 유망상품을 발굴하여 시장 선점 및 신규 바이어 발굴 노력 필요
- 전자, IT, 건설기자재 등 우리기업 경쟁력 보유 수출 유망상품 내수시장 공략. 아울러,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및 현지 출장 등을 통해 현지 수요 증가 품목을 조사하여 마케팅 활동

○ 건설 및 IT 프로젝트 등 프로젝트 시장 진출 노력

- 콜롬비아는 국가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도로, 공항, 항만을 비롯한 국가 인프라 개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남미 국가임
- 아울러, IT 프로젝트도 콜롬비아 12개 중소도시 ITS 구축 프로젝트가 '14년 시행되는 등 ITS 프로젝트 발주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코트라 무역관 및 대사관을 통한 프로젝트 시장 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입수 활동 필요

< 무역관 발굴 콜롬비아 수출유망상품 >

품목명	HS CODE	시장규모(천 달러)	증가율(%)	참고(전시회)
자동차부품	8708	449,823	-11.3	Feria Autopartes
화장품	3304	112,072	0.08	Colombia Beauty Show 2014
건설장비	8427	894,686	-32.52	Expo Oil & Gas Colombia 2014
LED램프	8541	21,248	5.2	FIMA FERIA DEL MEDIO AMBIENTE
섬유	6001	5,639,000	4.7	COLOMBIATEX 2014
섬유기계	8445	24,041	-53.27	COLOMBIATEX 2014
송전용전선	8544	53,153	-8.48	Expo Energia 2014
전기자동차	8703907000	168	-94.7	Salon Internacional del Automovil
광케이블	8544	40,859	-36.5	
의료기기	9018	204,853	-1.31	Feria Internacional de la Salud Meditech 2014

■ 터키, 한-터키 FTA 3년차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 활용

○ 전자, 기계, 차부품 등 주력 수출품목 내수시장 공략

- 터키의 전자산업이 발전하면서 내수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제품인 TV, 에어컨, 가전기기 등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 예상. FTA 관세인하 효과를 적극 활용하고 기술개발 및 마케팅을 통해 현재의 점유율을 유지 전략 필요

* TV제품은 한국제품이 시장점유율 60%이상이며 지속 확대되고 있음

- 기계류, 차부품, 플라스틱류 등도 현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나 수요가 높은 품목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홍보를 통한 시장진출 필요

< 무역관 발굴 터키 수출유망상품 >

품목명	HS CODE	시장규모(천 달러)	증가율(%)	참고(전시회)
마스크팩	330410	-	-	Beauty Eurasia
비비크림	330499	172,420*	15.15*	Beauty Eurasia
벽지 및 벽 피복제	481420	47,288	24.24	TURKEY BUILT ISTANBUL 2014
플랜지	730721	12,000	5	Ankiros 2014 12th International Iron Steel and Foundry Technology, Machinery and Products Trade Fair
창문필름	391990	509,542	21	TURKEYBUILD ISTANBUL
콘크리트 펌프	841340	6,000,000	20	Beton 2014
인조섬유	580421	6.45	4	CLOTHING INDUSTRY AND ACCESSORIES FAIR
히팅케이블	854411	49,917	-2.15	TURKEY BUILD (YAPI FUARI)
안경렌즈	900150	33,284*	-0.98*	Istanbul Optic Exhibition
저장기 및 탱크	392510	19,500	13.6	ISK SODEX 2014

* 표시 항목 : 현지 시장규모 통계 부재로 수입규모 수치로 대체

■ 베트남, 한-베 FTA 활용한 유망품목 발굴 및 공공분야 SOC 시장 공략

- 향후 한-베트남 FTA 체결에 대비한 선제적 시장 선점과 인프라 분야 공략
 - 한-베트남 FTA가 최근 3.28일 가서명되어 올해 비준 및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어 FTA 관세인하 효과를 활용한 수출 유망품목 발굴과 내수시장 진출 위한 마케팅 전략 구사 필요
 - 아울러 현지의 낙후된 의료 인프라에 비해 의료시장이 성장세를 보임에 따

라 의료기기, 의료 IT 시스템 등의 시장진출이 유망됨

○ 베트남 정부 재정 확대를 기회로 공공 인프라 분야 진출 강화

- 전력, 도로, 수자원, IT 등 분야 인프라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수요가 증가하는 등 분야 프로젝트 및 기자재 시장 진출위한 적극적인 공략 필요

* (전력) 16,000MW에서 2020년까지 59,440MW로 확대 추진. 향후 10년간 매년 4,000MW 상당 발전소 건립 추진중

(도로) 2020년까지 교통 인프라 개선위해 총연장 5,900km 상당의 고속도로 20개 건설을 위해 500억 달러 이상 투자전망

(수자원) 2025년까지 도심지역과 산업지구 상수 보급 계획에 따라 도심지역 일일 1명당 120리터를 공급하고자 매년 6억 달러 투자 중

(IT) 2015년 본격적인 4G 서비스 구축 착수, 디지털 방송 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186억 달러 투자 등 IT 특수 기대

< 무역관 발굴 베트남 수출유망상품 >

품목명	HS CODE	시장규모(천 달러)	증가율(%)	참고(전시회)
장난감	950300	-	-	Vietnam Int'l Baby & Kids Fair
해조류	121221	4,062*	-	VIETFOOD & PROPACK VIETNAM 2014
인삼제품	130219	-	-	Food Ingredients Vietnam 2014
스킨케어	3304991000	-	-	Cosmobeaute Vietnam 2014
산업용 주방기기	8516	-	-	VIETFOOD & PROPACK VIETNAM 2014
디지털 도어락	830140	-	-	-
자동차 및 건축용 플라스틱제 접착성 필름	391990	214,561	26	Plastic & Rubber Vietnam 2016
기능성 식품	2106901090	-	-	Triển lãm Quốc tế Thực phẩm và Đồ uống Việt Nam 2014
젓병	392330	-	-	-
유기농 비료	310100	-	-	-

* 표시 항목 : 현지 시장규모 통계 부재로 수입규모 수치로 대체

□ 문의처 : 신흥시장팀 김 희중 전략시장 PM (T:02-3460-7314) <끝>